



완산방커,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과거 방공호, 문화관광시설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 로 재조성... 10개 콘텐츠룸 등 15개 공간 구성

과거 충무시절로 사용됐던 전주시 완산동 완산방커가 문화의 옷을 입고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전주시는 문화관광시설인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 (이하 완산방커)로 재탄생한 완산방커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완산방커는 과거 전시 상황을 대비해 군·경찰·도 지휘소가 들어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1973년에 조성된 땅굴형 방공호로,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공호로 사용되던 완산방커는 지난 2005년 전북특별자치도청이 효자동으로 이전한 뒤 용도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고구마 저장고 등으로 활용되는 등 버려진 시설로 남겨 있었다.

이에 시는 완산방커의 문화적 보존 가치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문화관광시설로 재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완산방커의 활용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폐쇄된 방공호와 연결된 멀티버스를 비밀요원(관람객)이 탐험한다'는 주제의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지난 2023년부터 기반시설 조성 및 콘텐츠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10개의 콘텐츠룸 등 총 15



22일 전주시 완산동 완산방커에서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 현장 공개'가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왼쪽)이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 완산방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 콘텐츠인 '차원의 문'의 경우 LED 모듈과 거울을 활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빛의 조화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 직원, 완산동 지역 학생(완산초·곤지중)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을 완료한 후 오는 2월 4일 정식 개관을 갖고 오는 2월 5일부터는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완산방커는 전주시가 직영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 1만원

△청소년(13~18세) 8,000원 △어린이(4~12세) 5,000원이며,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이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전주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1일 밤에 발생한 부안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빠른 재건 위해 최선 다할 것”

김관영 도지사,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현장 방문·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4분경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약 1억3,0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1층의 11개 점포가 소실되었고, 1층의 8개 점포와 2층 식당은 그들을 피해를 입었다. 특히 수족관, 냉장고 및 어패류 등의 손실이 커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은 이번 화재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부안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수산물 시장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피해 점포 운영자들에게 농림수산물전기금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10억원 규모의 영조물 보증을 통해 재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점포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점포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에서 피해 상인들과 직접 만나 복구 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안군과 협력해 상인들의 빠른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초미세먼지 비상... 도·시군,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6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밝혔다. 이에 따라 송금현 환경산업국장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7개 핵심 부서와 14개 시군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만 대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운행을 줄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살수차 운영 확대 등

또한, 도내 대규모 배출사업장 47곳과 1,458개 공사 현장은 가동을 조정하고 공사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저감 조치에 적극 동참했다. 도로재미산먼지 억제제를 위해 62대의 도로청소차가 주요 구간 174.1km를 집중 청소했으며, 살수차 운영도 대폭 확대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자막, 재난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민 행동요령을 신

속히 전파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순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 사례를 엄중히 조치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업국장은 전주시 여의동의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현장과 김제시 감산동의 차량 배출가스 단속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송 국장은 "현장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초미

세먼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어 "도민들의 협조와 사업장 및 공사 현장의 철저한 조치 이행이 큰 피해를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안전이 우선’... 전북소방,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내일 오후 6시부터 내달 3일 오전 9시까지... 화재 예방 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24일 오후 6시부터 2월 3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며, 주요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기습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장비를 100%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

획이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대 열흘에 달하는 설 연휴 동안 역·터미널 등에 다중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역 등 72곳에 차량 74대, 인력 251명을 사전에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은 하루 2회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